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1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15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나름 가까운 거리였고 버스가 한국에 비해 자주 오는 편은 아니지만 시간을 잘 지켜주기에 타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학교는 깨끗하고 카페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만큼 분위기가 활기찼다.
수업	수업방식은 현지인 선생님께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법, 듣기, 쓰기, 말하기 모두를 골고루 가르쳐 주셨다. 문법수업은 문법하나하나 틀리는 부분을 봐주시며 섬세하게 가르쳐주셨고 듣기와 말하기는 발표방식과 상대방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쓰기는 내 경험을 빚되어 수업에서 배운 대로 글쓰기를 했으며 틀리는 부분은 고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다. 과제도 부담스럽지 않은 만큼 적당하게 내주셨고 수업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학생들의 참여를 위주로 진행되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셨다. 분반은 두 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각자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듣도록 했다.
Activity	야외활동으로는 개썰매, 알파카공원, 스키타기 등을 했고 추가비용은 기념품비용 제외하고는 딱히 없었다. 실내활동은 주로 봉사활동으로 진행되어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한국문화 알리기, 양로원에서 하와이완 목걸이 만들어 드리기 등을 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야외에서 맨바닥을 밟을 기회가 적을 만큼 항상 눈이 쌓여있었지만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괜찮은 날씨였다. 신발은 부츠를 신는 게 좋았고 핫팩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안전	매우 안전하고 조용하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 매우 아늑하고 평안한 분위기였다. 세탁기는 평일에는 7시부터10시까지 사용가능했고 주말은 시간제한 없이 사용가능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 기타() 현지 음식을 삼주동안 먹는다는 생각에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정말 맛있었고 우리 입맛을 많이 고려해주셨다.
교통	항상 버스를 타고 다녔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 및 기념품비	772000	
합계	772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겨울에는 특히나 추워서 히트텍이나, 목도리, 장갑 등이 있으면 좋다. 특히 손에 들고 다니는 핫팩을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누가 노트북이 필요할 것이라는 후기를 보고 챙겨갔지만 짐만 된 거 같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가는 것이 좋다. 나중에 기념품 등을 사게 되면서 가방이 심각하게 무거워진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4학년이라서 사실 어학연수 가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는데 간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삼주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이번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정한 게 있다면 영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즐겁게 하고 싶어졌다. 영어를 단지 학업의 하나로만 생각했던 나를 반성하고 충분히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평소에도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고 미드 등을 보면서 듣기 실력을 더욱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세인트마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만큼 사람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가족과도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항상 사진으로만 보던 동물을 실제로 볼수 있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좋았다. 알파카들이 정말 귀여웠다.



개썰매를 탔는데 허스키들이 힘차게 달려주어서 재밌었다. 허스키들이 계속 달리면 지칠까봐 한 마리씩 교체하면서 진행했다.



홈스테이주인이 해주신 요리다. 한국에서 먹어볼 수 없던 음식이라 색달랐고 정말 맛있었다.



글로벌 프렌즈 행사로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시간이었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일요일에 하키경기를 보러갔었는데



곳곳에 그래비티가 있어서 구경했는데

사실 스포츠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별 기대 없이 갔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흥미로웠다.
---	--------